

尤庵 宋時烈의 著述과 刊行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the Works of Wooam Song Si-Yeol and Their Publications

김 동 환(Kim, Dong-Hwan)*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尤庵의 生涯 | <참고문헌> |
| 3. 尤庵의 著述과 刊行 | |

<초 록>

본 論考에서는 尤庵 宋時烈의 著述 중 「우암선생계녀서」와 문집인 尤菴先生文集, 「宋子大全」의 刊行과정을 考察해 보았다. 우암선생계녀서는 尤庵이 시집가는 長女를 위해 써준 책이다. 부모 섬기는 도리, 남편 섬기는 도리 등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警戒書로 한글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종류의 寫本이 전래되어 있는데, 두 책 모두가 필사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서 필사년을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한글로 된 본문이 비교적 근대적인 어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標題가 「우암선생 계녀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암의 死後 상당히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尤庵文集의 간행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肅宗때에 간행이 이루어진 「尤菴先生文集」이요, 두 번째는 이를 증보하여 집대성한 「宋子大全」의 간행인 것이다. 「尤菴先生文集」은 158권 50책에 이르는 분량으로 1719년(숙종 45년)에 간행이 이루어졌다. 조선조 후기 官鑄活字인 校書館印書體字로 인쇄된 금속활자본이다. 「尤菴先生文集」을 증보하여 목록 2권 2책, 본서 215권 91책, 부록 19권 9책으로 도합 102책으로 편성한 문집이 「宋子大全」이다. 이 책을 처음으로 간행한 것은 1787년(正祖 11년) 일로서, 그해 9월 平安監營인 箕營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후 「宋子大全」의 간행은 일제 강점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의 것은 우암이 재야시절에 기거하였다는 杞菊亭에서 木板으로 開刊한 것으로 1926년의 일이다. 杞菊亭本 開刊 이듬해인 1927년에는 南澗精舍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宋子大全」 102冊에 拾遺 11卷 5冊을 더하여 모두 107책으로 된 木板本の 간행사업이 있었다.

要語 : 尤庵, 宋時烈, 「우암선생계녀서」, 「尤菴先生文集」, 「宋子大全」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hkim@joongbu.ac.kr)

접수일: 2007년 8월 25일 최초심사일: 2007년 8월 27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14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blication process of Wooam-Seonseng-Gyenyeseo, Wooam-Seonseng-Moonjip and Songja-Deajeon which are the collection of Wooam Song Si-Yeol's works.

Wooam-Seonseng-Gyenyeseo was written in Hangeul by Wooam for his first daughter to be married. Two different versions of this manuscript are currently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ut both lack the date of transcription, therefore it's only assumed that they were transcribed long after the death of Wooam, based on their style of writing and title.

The collection of Wooam's works were twice compiled and published on a large scale. The first attempt was made in 1719 AD (4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o publish Wooam-Seonseng-Moonjip, which consisted of 50 volumes for 158 topics. As the second attempt, Songja-Deajeon, the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Wooam-Seonseng-Moonjip, was published with 91 volumes for 215 topics, 19 Appendices and another 2 volumes for the table of contents. Songja-Deajeon was published three times. It was first published at Kiyong(箕營) in woodblock prints in 1787 AD (11th year of King Jeonjo) and later published also from woodblocks at Kikukjeong(杞菊亭) in 1926 and Namgan-Jeongsa(南澗精舍) in 1927, respectively, located in Daejeon City.

Key words : Wooam, Song Si-Yeol, Wooam-Seonseng-Gyenyeseo,
Wooam-Seonseng-Moonjip, Songja-Deajeon

1. 緒 言

尤庵 宋時烈은 조선조 中期의 大儒學者요 한 시대를 風靡한 정치가이다. 그러나 黨爭이 극심했던 시대의 한 중심인물로 활동한 연유로 후세 그의 대한 評價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尊崇과 貶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생을 義理와 名分으로 강직한 삶을 살았고 東方의 朱子라 불릴 만큼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지만, 明나라만을 신봉하는 事大主義者라든가 黨爭의 化身 또는 朱子學에 편중된 教條主義者라는 등 비관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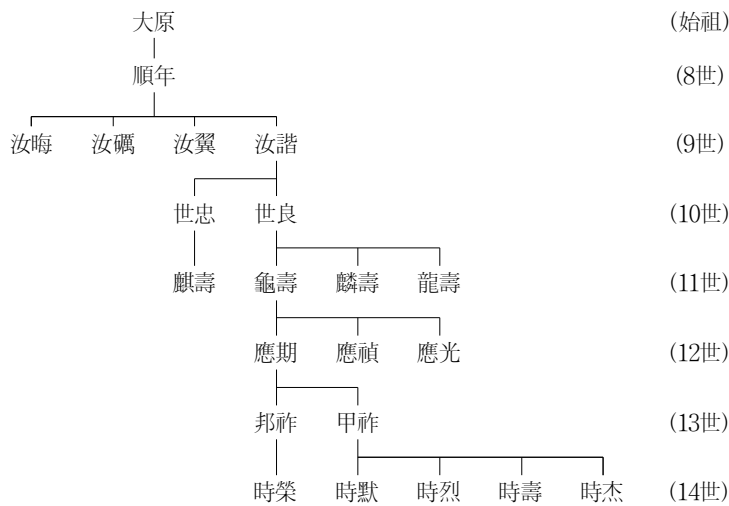
그간 우암 연구는 性理學, 歷史學, 政治學 및 國文學 등 여러 분야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¹⁾ 하지만 우암의 著述과 그 刊行過程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丁亥年 올해는 마침 우암 송시열의 誕生 4백주년인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학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우암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학술대회와 기념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그의 저술과 간행과정 및 각 저술의 板本을 고찰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여타 분야의 우암 연구에 작으나마 밑그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암의 著述로는 시집가는 女息을 위해 지었다는 「계녀서」와 文集인 「尤菴先生文集」, 「宋子大全」이 있고, 編著書로는 「朱子大全劄疑」, 「孟子問義通攷」, 「節約通編」 등과 같은 많은 저술을 남겼다. 本稿에서 기술하는 우암의 생애는 그의 정치적 歷程과 관련된 功過 또는 성리학적 사상에 대한 論評을 가급적 삼간다. 다음으로 그의 저서인 「계녀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집은 「尤菴先生文集」과 「宋子大全」으로 나누어 그 간행과정과 판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타의 편저서에 관해서는 後稿로 미룬다.

1) 기존의 주요한 우암 연구로는 ①단행본 : 홍경호, 「우암 송시열」 (서울: 신구미디어, 1993) 외 15종 ②학술논문 : 柳南相, “尤庵 宋時烈의 哲學史想,”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6卷 1號(1979. 6) 외 38편 ③학위논문 : 金文俊, “尤庵 宋時烈의 哲學史想에 관한 연구 : 春秋義理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외 29편 등이 있다.

2. 尤庵의 生涯

宋時烈은 恩津 宋氏 14世孫으로 字는 英甫요 號는 華陽洞主 또는 尤庵으로 오늘날에는 우암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607년(宣祖 40년, 丁未) 沃川(지금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 父 宋甲祚와 母 郭氏夫人 사이의 제3자로 태어났다. 恩津宋氏는 본래 開城이 본거지로 여겨지는데, 4세에서 6세 사이에 懷德(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으로 이주하여 世居하였다 한다.²⁾ 은진송씨를 懷宋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³⁾ 송시열 또한 懷德人인데 옥천에서 출생한 연유는 그의 부친이 벼슬을 그만둔 뒤 한동안 妻家인 옥천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송시열의 家系를 恩津宋氏族譜에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宋時烈 家系圖>

2) 崔權默, "尤庵 宋時烈 研究 I: 그의 家系와 他姓氏族," 『百濟研究』 제16집(1985), 23.
 3) 恩津宋氏가 회덕지방에 集成村을 이루고 살았으므로 지금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는 宋村洞이라는 동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의 부친인 宋甲祚(1574-1627, 號 睡翁)는 1617년(光海君 9년)에 司馬試에 합격한 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시 西宮에 幽閉된 仁穆大妃에게 문안을 드린 일화가 있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儒籍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文科試驗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낙향하여 후학의 양성에만 盡力하였다. 평생을 義理와 剛直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던 송시열의 정신은 그의 부친에게서 받은 영향이 적지가 않았을 것이다.

유년시절 송시열은 그의 부친에게 訓育을 받으면서 자랐고, 같은 宋氏 집안 사람으로 그와 함께 후대에 兩宋으로 불리우는 同春堂 宋浚吉(1606-1672)과의 交友도 어릴적부터 이루어졌다. 그가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접어든 것은 沙溪 金長生(1548-1631)의 門下에서 修學하면서부터인데, 그의 나이 24세 때이다. 沙溪는 栗谷 李珣(1536-1584)의 適統을 이은 학자요, 율곡은 宋代 주자학을 계승·발전시킨 인물이니 결국 우암의 學統은 朱子-栗谷-沙溪-尤庵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우암은 1633년(仁祖 11년) 9월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敬陵 參奉職에 除授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인 懷德으로 낙향하였다. 이 때가 27세가 되던 해의 일이나 科擧及第와 관직의 임명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루어진 셈이다. 2년 뒤인 1635년 11월에는 鳳林大君(후의 孝宗)의 師傅로 임명되어 중앙관직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일어난 丙子胡亂의 결과로, 1637년에 봉림대군이 世子와 함께 瀋陽에 볼모로 잡혀간 이후 大君과의 인연은 끊어진다. 이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기까지 약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조정으로부터의 부름이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俗離山과 黃澗 등지에서 隱居하면서 학문을 탐구하고 당대의 名儒들과 交遊하였다. 당시 그와 白湖 尹鑄(1617-1680)간에 행해진 性理學의 哲學論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644년에 昭顯世子가 세상을 하직하자 봉림대군이 뒤를 이어 세자에 冊封되고, 1649년 王位에 오르니 그가 孝宗이다. 대군시절 師弟의 인연으로 우암은 그 해에 바로 世子侍講院의 進善(정4품)으로 발탁되고 곧이어 司憲府 掌令(정4품)에 임명된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의 일이며 본격적인 정치참여의 시작인

것이다. 효종의 총애를 받은 그였지만 北伐政策을 담은 己丑封事를 올린 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1650년(효종 1년)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에 수차례의 중앙관직과 外職의 임명이 있었지만 모두 固辭하고 주로 회덕의 蘇堤洞(지금의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에 杞菊亭을 짓고 기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우암선생계녀서」의 저술, 「近思錄釋疑」와 「疑禮問解」의 校訂이 이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가 다시 관직에 나아간 것은 재야생활 8년만인 1658년(효종 9년)으로 이 해에 吏曹判書의 직에까지 오르게 된다. 왕의 절대적 신임으로 나름대로의 북벌과 개혁정책의 실현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이듬해 효종의 急逝로 인하여 그의 뜻은 좌절되고 만다.

효종이 昇遐하고 顯宗이 즉위한 1659년에 잠시 判義禁府事, 判中樞府事, 議政府左參贊 등의 직에 임명되었으나, 그 해 12월 관복을 벗고 다시 소재동으로 귀향한다. 60세가 되던 1666년에는 거처를 속리산 華陽洞 溪谷으로 옮겨 山水와 벗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雅號를 華陽洞主라고도 부른 연유가 여기에 있으며, 지금도 당시에 세웠다는 정자인 巖棲齋가 그곳에 남아있다. 다시 중앙관직에 발탁된 것은 재야생활 9년만인 1668년(顯宗 9년)의 일이다. 그 해 9월 判中樞府事를 시작으로 현종 말년까지 약 5년간 右議政, 左議政, 領中樞府事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다.

당년 68세가 되던 1674년에 肅宗이 즉위한다. 극심한 당쟁의 와중에서 숙종 자신의 심리적 갈등까지 더해 內府의 정치적 파란이 연속된 숙종연간에 우암의 정치적 浮沈과 시련은 계속된다. 그간 끈질기기 거론되어 오던 己亥年의 禮訟, 즉 효종이 昇遐하자 당시 생존한 효종의 모후인 慈懿王大妃의 喪服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 우암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暮年服制(1년 상복)가 성사된 사건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영남의 儒生 郭世權이 우암을 탄핵하는 상소로 시작되어 兩司의 論啓를 받아 罷職되었으며, 결국 이듬해인 1675년(숙종 1년) 69세의 나이에 德源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약 5년 동안 長鬢(경북 영일군)와 巨濟島로 유배지가 옮겨지면서 圍籬安置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朱子大全劄疑」의 저술, 「程書分類」와 「朱

子語類小分」의 편찬 등 상당한 학문적 성과가 있었다.

1680년(숙종 6년)의 이른바 庚申換局으로 정국은 反轉되고 우암의 유배도 해제된다. 그 해 12월에는 領中樞府事에 임명되어 政界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이후의 政局은 朋黨이 도를 더해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西人이 우암을 중심으로 한 老論과 우암의 門下였던 尹拯을 중심으로 하는 少論으로 나누어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1683년(숙종 9년) 그의 나이 77세 때에 休致를 청하여 허락을 받고 이후로부터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奉朝賀의 지위였지만, 숙종의 각별한 대우와 함께 노론의 領袖로서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하였다. 그러나 1689년(숙종 15년)에 禧嬪 張氏의 몸에서 난 왕자(후의 景宗)의 元子冊封의 부당함을 알리는 上疏로 인하여 제주도로 유배의 명이 내린다. 우암이 去勢되어 노론이 몰락하고 南人세력이 得勢하게 되었으니 역사상 이를 두고 己巳換局 또는 己巳土禍라고 일컫는 것이다. 같은 해 6월 우암은 제주도에서 移配되던 도중에 전라도 井邑에서 賜死하였으니, 그의 나이 83세 때의 일이다. 우암의 死後 5년 뒤인 1694년(숙종 20년)에 그의 官爵이 회복되고 그 이듬해에는 文正이라는 諡號가 追贈되었다.

우암의 政治歷程과 관련하여 그 공과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의 학문사상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書院의 配享 인물의 분포에서 우암은 退溪 李滉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이 조사된 것⁴⁾만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⁵⁾

4) 崔權默, “尤庵 宋時烈的 文廟 및 書院從祀,” 『百濟研究』 제16집(1985), 23.

5) 현재 남아있는 우암의 주요 사적은 다음과 같다.

①遺墟碑(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 생가터) ②遺墟碑(충북 영동군 황간면) ③遺墟碑閣(전북 정읍시) ④寒泉精舍(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⑤巖棲齋(충북 괴산군 화양계곡내) ⑥南澗精舍(杞菊亭 : 대전시 동구 가양동우암사적공원내) ⑦大老祠(기념 사당 : 경기도 여주군) ⑧墓所(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 우암의 저술과 간행

3.1 「우암선생계녀서」

중양의 관직생활을 그만두고 두 번째로 낙향하여 회덕에서 隱居할 때, 시집가는 長女를 위해 써준 책이다. 부모 섬기는 도리, 남편 섬기는 도리, 형제·친지와 화목하게 지낼 것, 자식의 훈육, 손님을 접대하는 법, 언어를 삼갈 것, 의복과 음식의 마련, 금전의 대차, 어른의 간병 및 노비를 다룰 때에 유의할 점 등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내용으로 하는 警戒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아래의 두 종류의 寫本이 전래되어 있다.

① 우암선생계녀서/송시열 저. 寫本. [筆寫地未詳] :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1책(25장) : 반엽 9行(字數 不同) , 25.0×18.7cm.

② 우암선생계녀서/송시열 저. 寫本. [筆寫地未詳] :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1책(15장) : 23.2×21.4cm.
漢字 書名 : 尤庵先生戒女書

두 책 모두가 필사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서 필사년을 밝히기가 어려우나, 한글로 된 본문이 비교적 근대적인 어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標題가 「‘우암선생’계녀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암의 死後 상당히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3.2 「尤菴先生文集」⁶⁾

우암문집의 간행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숙종때에 간행이 이루어진 「尤菴先生文集」이요, 두 번째는 이를 증보하여 집대

6) 題名에 쓰인 ‘菴’字는 ‘庵’字와 동일한 글자로 본 문집의 卷首題, 版心題 등에 모두 이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성한 「宋子大全」의 간행인 것이다.

첫 번째의 간행사업인 「尤菴先生文集」의 간행은 우암에게 死藥을 내렸던 숙종에 의해 성사되었다. 1694년(숙종 20년)에 그의 官爵이 회복되고 난 뒤 23년이 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으니, 死後 28년만의 일이다. 우암 死後의 정국은 禧嬪 張氏의 득세와 仁顯王后의 廢位 및 復位, 張禧嬪의 賜死 등 內府의 격랑을 겪으면서 黨爭도 南人의 몰락과 老·小論의 대결 등으로 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술한 獄事가 벌어졌고 派黨간 정권의 부침도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마침내 당쟁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시기는 숙종의 재위 말기에 이르러서이다. 숙종 42년에 해당되는 1716년에 내려진 丙申處分, 즉 생전의 송시열과 윤증간에 행해졌던 시비(이를 흔히 懷尼是非라 일컫는다)에 대해 숙종이 老論의 편을 들어 주고 그 해말에는 윤증에게 내려졌던 僭稱(先正臣의 호칭)을 금하라는 조치가 내려져⁷⁾ 그간의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론계열의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국이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우암문집의 간행도 이러한 정국의 흐름과 무관치 않으니, 丙申處分 바로 이듬해인 1717년(숙종 43년)에 그의 제자 閔鎭厚는 우암이 歿한지 오래되었는데도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그의 자손과 제자들이 책을 간행하려 해도 卷帙이 방대하여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이 일을 맡아 달라는 上疏文을 올렸다.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校書館에서 문집을 간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⁸⁾ 卷首題와 卷末題가 尤菴先生文集 으로 되어 있고 版心題는 「尤

7) 「朝鮮王朝實錄」 肅宗 42年 12月 乙卯(條) “太學生金致堉等八十人, 上疏略曰, …竊惟先正臣宋時烈道德學問之淺深高下, 雖非臣等所可窺測, 蓋其所行者, 朱子之道, 所重者, 春秋之義, 出處終始, 粹然一出於義理之正, 尊此者爲陽爲君子, 反此者爲陰爲小人, 此可以後百世而不惑矣. 一自禍起文壇, 變怪層生, 世道之升降反覆, 殆不加勝計, 而義理之晦塞, 異言之喧騰, 至近日而極矣. 乃者, 殿下, 取覽尹拯辛酉擬書, 而下教曰, 書辭果多操切, 不可歸之於全然無過之地, 繼又洞辨墓文之元無辱及尹宣學, 周禮文字之終不襯合於近日事, 則拯之背師之罪, 始莫逃於淵鑑之下矣. …伏乞聖明, 察賢邪之分, 軫消長之幾, 禁尹拯先正之僭稱, 而永塞邪說之源于, 以昭大義於寢晦, 存師道於既滅, 使天理日明, 人心日正. 上, 答曰, 縷縷數千言, 宣出扶正斥邪, 而拔本塞源, 辭嚴理明, 披覽忘倦, 嘉歎不已也. 予於先正, 可不益篤尊敬之誠哉. 所謂僭稱尹拯先正之稱, 自今痛禁, 使是非益明焉.”

8) 「朝鮮王朝實錄」 肅宗 43年 7月 丙辰(條) “…提調閔鎭厚曰, 先正臣宋時烈, 歿已久矣,

菴先生集」으로 나타난다. 총 158권 50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 2년 후인 1719년(숙종 45년)에 실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조선조 후기 官鑄活字인 校書館印書體字로 인쇄된 금속활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3648-39-10)에 전래되고 있는 「尤菴先生文集」의 형태적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尤菴先生文集/宋時烈 著. 芸閣[校書館]印書體字本.⁹⁾ [肅宗 45(1719)]
目錄, 158卷 50冊 : 四周單邊 半郭 21.2×14.4cm. 有界. 半葉 11行 20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29.6×19.1cm.

3.3 「宋子大全」

문자 그대로 우암 저술을 집대성한 문집이다. 목록 2권 2책, 본서 215권 91책, 부록 19권 9책으로 도합 102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앞서 간행된 「尤菴先生文集」의 내용을 증보하여 「宋子大全」으로 題名을 바꾼 것이다. 두 책을 우선 외형적으로 비교해볼 때, 전자의 권수가 158권에서 후자에서는 215권으로 늘어났는데 반해 책수에 있어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2배 이상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책의 行字數의 차이 때문이다. 즉 「尤菴先生文集」은 半葉 11行 20字로 되어있고, 「宋子大全」은 半葉 10行 20字로 되어있다. 두 책이 字數는 동일하나 「宋子大全」에서 1行을 적게 새겨 넣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책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내용상의 증보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두 책의 목차를 비교해 보았다.

「尤菴先生文集」에 수록되지 않은 附錄은 제외하고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은 증보가 이루어진 내용은 역시 書이다. 「尤菴先生文集」에는 권26부터 권 85에 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宋子大全」에는 권26의 후반부터 권 129까지에 수록되어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103권에 이른다. 「尤菴先生文集」간행 이후에 수습된

而文集尙未刊行, 誠是欠事, 今聞其子孫門生, 欲付之欵, 而卷帙浩大, 未易始工云, 自校書館刊行, 似爲得宜矣. 上曰, 曾前同春集, 亦以特命刊出矣, 今亦分付校書館刊行.”

9) 이 活字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활자명을 달리 命名하여 붙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校書館印書體字本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표 1> 「尤庵先生文集」과 「宋子大全」의 목차비교

| 「尤庵先生文集」 | 「宋子大全」 |
|---|---|
| 卷1; 賦, 詩 - 卷2-4; 詩 - 卷5-6; 疏 - 卷7-8; 疏筭 - 卷9-10; 疏 - 卷11-12; 疏筭 卷13; 疏 - 卷14-17; 疏筭 - 卷18-19; 疏 - 卷20; 疏, 啓辭 - 卷21-24; 書啓 - 卷25; 獻議 - 卷26-85; 書 - 卷86-89; 雜著 - 卷90-92; 序 - 卷93-94; 記 - 卷95-96; 跋 - 卷97; 銘, 箴, 贊, 箋, 婚書, 上樑文 - 卷98; 祝文 - 卷99-100; 祭文 - 卷101-116; 碑 - 卷117-125; 墓碣 - 卷126; 陵誌 - 卷127 - 133; 墓誌 - 卷134-145; 墓表 - 卷146-148; 諡狀 - 卷149-154; 行狀 - 卷155; 遺事, 語錄, 附錄 - 卷156-158; 傳. | 卷1; 賦, 詩 - 卷2-4; 詩 - 卷5; 封事 - 卷6-7; 疏 - 卷8-9; 疏筭 - 卷10-11; 疏 - 卷12-13; 疏筭 - 卷14; 疏 - 卷15-18; 疏筭 - 卷19-20; 疏 - 卷21; 疏, 啓辭 - 卷22-25; 書啓 - 卷26; 獻議, 書 - 卷27-129; 書 - 卷130-136; 雜著 - 卷137-139; 序 - 卷140-145; 記 - 卷146-149; 跋 - 卷150; 銘, 箴, 贊, 箋, 婚書, 上樑文 - 卷151; 祝文 - 卷152; 祭文 - 卷153; 祭文, 哀辭 - 卷154-170; 神道碑銘 - 卷171; 碑 - 卷172-180; 墓碣銘 - 卷181; 陵誌 - 卷182- 188; 墓誌銘 - 卷189-201; 墓表 - 卷202-205; 諡狀 - 卷206-211; 行狀 - 卷212; 遺墨, 語錄 - 卷213-215; 傳, 附錄 卷1; 教書, 賜祭文 - 卷2-12; 年譜 - 卷13; 墓表, 畫像贊 - 卷14-18; 語錄 - 卷19; 記述雜錄. |

우암의 朱子 성리학 연구, 당대의 학자들과 행하였던 학문적 論辨 등의 問答書들이 모두 여기에 수록된 것이다. 증보의 예를 들어보면, 「尤庵先生文集」 권76의 일부에 수록된 尹拯과의 문답서가 「宋子大全」에는 권 110 전체와 권111의 앞부분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앞의 「尤庵先生文集」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人士와의 문답서가 「宋子大全」에는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¹⁰⁾ 본문의 구성상 書 다음으로는 두 책 모두 疏 와 疏筭가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중앙관직에 종사할 때뿐만 아니라 재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政事와 관련된 上疏를 끊임없이 奏進한 결과일 것이다.

「宋子大全」의 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732년(영조 32년)에는 年譜 5책이

10) 「宋子大全」 卷四十二; 答林靈巖, 卷四十三; 答李靜叔, 卷四十四; 答沈子章, 答趙判書珩, 卷四十五; 答洪君敘, 答申浩仲 등은 「尤庵先生文集」 에는 수록되지 않은 書이며, 권사 십칠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尤庵先生文集」 에 수록되지 않은 書로 편성되어 있다.

만들어졌고, 1776년(정조 원년)에는 正祖의 御製尤菴集序文이 완성되었다.¹¹⁾ 이 서문은 正祖가 세자로 있을 때에 이미 써둔 것이니, 이 때부터 『宋子大全』의 간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후대인 哲宗實錄에 관련된 기사가 나타나 있다.¹²⁾ 완질이 간행된 것은 1787년(정조 11년) 일로서, 그해 9월 平安監營인 箕營에서 『宋子大全』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箕營本 의 형태적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宋子大全/宋時烈 著. 木板本. [平壤] : 箕營, 正祖 11(1787)
四周單邊 半郭 21.2×16.5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8.7×20.3cm.

소장본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본(위창고 3648 39-3)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은 완질이 아니며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은 후쇄본이다.

이후 『宋子大全』의 간행은 일제 강점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의 것은 우암이 재야시절에 기거하였다는 杞菊亭¹³⁾에서 開刊한 것으로 1926년의 일이다. 杞菊亭에서 간행되었다 함은 필시 우암의 後孫과 그를 추종하는 儒生들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을 것이다. 杞菊亭本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립중

11)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6月 壬寅(條) “召見副司果宋煥億, 全義縣監宋宅圭, 煥億進孝廟御札 明聖王后諺教及獨對說話, 上覽訖曰, 先正際遇, 古未有也, 予在春宮時, 曾作先正文集序文, 未嘗出示外人矣, 先正子孫, 今入侍, 當示之矣, 命中官, 持來御製尤菴集序, 命承旨讀之, 煥億曰, 聖恩及此, 臣等感泣不知所達矣.”

12) 『朝鮮王朝實錄 哲宗 6年 8月 庚申(條) “…況我正廟朝丙申, 再處分之時, 因明徽之凶疏, 天怒震疊, 特下嚴教曰, 處分不嚴, 故有此悖論, 親鞫明徽, 而竄逐荒裔, 追罪尹拯, 而削奪誥命, 刊行宋子大全, 而尊崇之, 修葺兩賢傳心錄, 而闡明之, 處分既定之後, 凡厥邪說謬言, 不敢復售…”

13) 杞菊亭은 본래 현재의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있었는데 후에 南澗精舍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는 우암사적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南澗精舍가 남아 있다.

양도서관에 전래본이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형태적 서지사항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宋子大全/宋時烈 著. 木板本. [大田] : 杞菊亭, [1926]
零本 100冊(全 102冊) : 四周單邊 半郭 21.2×16.4cm. 有界.
半葉 10行 20字, 上花紋魚尾 ; 32.6×21.2cm.
刊記 : 崇禎三丁未(1787)箕營開刊…後百四十年丙寅(1926)杞菊亭重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동곡古 3648 b39-81)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과 刊記가 동일하고 책의 크기가 같으나, 題名이 「宋子大全及附錄」으로 되어 있고 간행년도가 昭和 10년(1935)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杞菊亭本의 후쇄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목록상에는 간기에 나타나는 “崇禎後幾年” 식의 연대표기에 대한 서력기원 환산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杞菊亭도 誤記되어 있다.¹⁴⁾

杞菊亭本 開刊 이듬해인 1927년에는 南澗精舍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宋子大全」 102冊에 拾遺 11卷 5冊을 더하여 모두 107책으로 된 간행사업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南澗精舍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宋子大全并附/宋時烈 著. 木板本. [大田] : 南澗[澗]精舍, [1927]
零本 105冊(全 107冊) : 四周雙邊 半郭 20.4×16.1cm. 有界.
上二葉花紋魚尾 ; 32.5×21.3cm.
刊記 : 乙卯(1927)開刊南澗[澗]藏板.

방대한 양의 문집이 두해에 걸쳐 연속으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간행이 실행되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나 책수가 다르고 匡郭의 크기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새롭게 開板한 것으로 여겨진다.

14) 崇禎三丁未를 1727년으로, 後百四十年丙寅을 1866년으로 잘못 환산하였으며, 杞菊亭을 松菊亭으로 표기해 놓고 있는 것이다.

IV. 結 言

尤庵 宋時烈(字는 英甫, 雅號는 華陽洞主 또는 尤庵, 諡號는 文正公)은 1607년(宣祖 40년) 忠淸北道 沃川에서 태어나 1689년(肅宗 15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중앙의 최고 관직에 오르는 등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黨爭이 극심했던 시대에 한 派黨의 중심인물로 內府의 갈등과 엮거리면서 罷職과 再登用, 流配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浮沈 또한 심했던 일생을 살았다. 이러한 窩中에도 朱子 性理學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우암의 政治歷程과 관련하여 그 功過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의 學問思想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至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書院의 配享 인물의 분포에서 우암은 退溪 李滉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이 조사된 것만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우암의 저술로는 우선 「우암선생계녀서」를 들 수 있는데, 시집가는 長女를 위해 써준 책이다. 부모 섬기는 도리, 남편 섬기는 도리 등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내용으로 하는 警戒書로 한글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종류의 寫本이 전래되어 있는데, 두 책 모두가 필사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서 필사년을 밝히기가 어렵다. 한글로 된 본문이 비교적 근대적인 어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標題가 「‘우암선생’계녀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암의 死後 상당히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尤庵文集의 간행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숙종때에 간행이 이루어진 「尤菴先生文集」이요, 두 번째는 이를 증보하여 집대성한 「宋子大全」의 간행인 것이다. 「尤菴先生文集」은 158권 50책에 이르는 분량으로 1719년(숙종 45년)에 간행이 이루어졌다. 조선조 후기 官鑄活字인 校書館印書體字로 인쇄된 금속활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전래본(일산古 3648-39-10)이 소장되어 있다.

尤菴先生文集」을 증보하여 목록 2권 2책, 본서 215권 91책, 부록 19권 9책으로 도합 102책으로 편성한 문집이 「宋子大全」이다. 이 책을 처음으로 간행한

것은 1787년(정조 11년) 일로서, 그해 9월 平安監營인 箕營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것이다. 소장본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본(위창古 3648 39-3)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은 완질이 아니며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은 후쇄본이다.

이후 宋子大全의 간행은 일제 강점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의 것은 우암이 재야시절에 기거하였다는 杞菊亭에서 木板으로 開刊한 것으로 1926년의 일이다. 杞菊亭에서 간행되었다 함은 필시 우암의 後孫과 그를 추종하는 儒生들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을 것이다. 杞菊亭本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래본이 소장되어 있다. 杞菊亭本 開刊 이듬해인 1927년에는 南澗精舍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宋子大全』 102冊에 拾遺 11卷 5冊을 더하여 모두 107책으로 된 木板本의 간행사업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南澗精舍本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原典>

- 『宋子大全』 宋時烈 著. 木板本. [平壤] : 箕營, 正祖 11(1787)
- 『宋子大全』 宋時烈 著. 木板本. [大田] : 杞菊亭, [1926]
- 『宋子大全并附』 宋時烈 著. 木板本. [大田] : 南澗[澗]精舍, [1927]
- 우암선생계녀서 . 宋時烈 著. 寫本. [筆寫地未詳] :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 『尤菴先生文集』 宋時烈 著. 校書館印書體字本. [肅宗 45(1719)]
- 『朝鮮王朝實錄』 肅宗 42年 12月 乙酉(條)
-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6月 壬寅(條)
- 『朝鮮王朝實錄』 哲宗 6年 8月 庚申(條)

〈單行本〉

- 괴산문화원 [편]. 尤庵 宋時烈의 思想과 學問. [괴산]: 괴산문화원, [發行年未詳].
- 斯文學會 編. 「송우암선생 계녀서 . 서울: 齊文堂, 1978.
- 송석효, 이성재 공편. 「우암 송시열선생의 계녀서」. 서울: 동환출판사, 1986.
- [宋允鎬 編]. 「恩津宋氏文正公波世譜」. [발행지미상]: 宋允鎬, 2002.
- 이중호 저. 우암 송시열 . 서울: 일지사, 2000.
- 홍경호 저. 우암 송시열 . 서울: 신구미디어, 1993.

〈論文〉

- 郭信煥. “宋時烈의 自主意識.” 儒學研究」제1집(1993). 187-202.
- 김문준. “宋時烈의 人性論과 人間의 主體性 問題.” 韓國思想과 文化 제1집(1998). 383-406.
- 김문준. “尤庵 宋時烈의 義理思想과 그 意義.” 東西哲學研究」제19호(2000. 6). 63-78.
- 孫文鎬. “宋時烈의 政治思想 研究.” 「湖西文化論叢」제4집(1987. 8). 33-48.
- 柳南相. “尤庵 宋時烈의 哲學思想.” 忠南大學校 人文社會科學研究所論文集」제6권 제1호(1979). 173-185.
- 이상익. “尤庵 宋時烈에 있어서 理와 氣의 相互主宰 문제.” 韓國思想과 文化」제23집(2004. 3). 31-62.
- 이원택. “己亥服制 논쟁과 그 이념적 논쟁.”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2000. 12). 23-40.
- 李載錫. “尤庵 宋時烈의 春秋大義論 研究.” 「統一問題와 國際關係(仁川大學校) 제8집(1997). 295-312.
- 장세호. “尤庵 宋時烈의 禮訟觀.” 「철학논총(새한철학회)」제30집(2002. 10). 95-116.
- 정재훈. “尤庵 宋時烈의 政治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2004. 3). 63-89.

- 조성산. “宋時烈的 性理學 이해와 現實觀.” 『韓國史學報』 제17집(2004. 7). 71-104.
- 趙駿河. “尤庵 宋時烈的 主體意識.” 『儒學研究』 제1집(1993). 149-160.
- 지두환. “尤庵 宋時烈的 生涯와 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제12집(2001). 119-142.
- 崔槿默. “尤庵 宋時烈 研究.” 『百濟研究』 제16집(1985). 19-30.
- 崔槿默. “尤庵 宋時烈的 文廟 및 書院從祀.” 『百濟研究』 제15집(1984). 175-196.
- 韓基範. “尤庵의 禮學思想과 現代社會.” 『韓國思想과 文化』 제14집(2001. 12). 123-176.
- 황의동. “우암의 의리사상과 현대적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2004). 3. 7-29.
- 황의동. “尤庵 哲學思想의 現代적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제16집(2002. 6). 297-326.
- 丘冀錫. “宋時烈的 政治思想.”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 金文俊. “尤庵 宋時烈的 哲學思想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 禹景燮. “宋時烈的 世道政治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연숙. “尤庵學派 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9.

